

어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더 열심이었답니다. 그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 예비문답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 사람도 예비문답을 받기 위하여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이 예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성도님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그 동안 외워 왔던 것을 대답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세례문답을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없었기에 목사님의 첫 번째 질문에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질문은 그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목사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악의 이름’ 을 아무리 생각해내려 해도 전혀 떠오르지 않는거예요. 그는 악에 대한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죠. 잘못 대답하면 세례 받을 기회가 무산될까 봐 그는 목소리까지 떨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답니다. “저, 목사님, 제가 그 ‘악의 이름’ 을 예전에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가 가끔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믿고 난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침내 세례문답을 통과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교회 생활이 강요나 부득이함이나 체면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으로 하는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의 경험에 매여서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의 법칙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법칙은 세상의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에 의존하고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예루살렘 성내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 가까이에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행각 다섯 즉, 큰 돌기둥 다섯이 그 연못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 였습니다. 이곳 이름의 뜻은 [베이트] 집, [헤세드] 은혜, 즉 “은혜의 집” 이라는 의미에 장소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38년된 병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때는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대인의 명절이고 38년된 병자를 고친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명절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 근처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낫는다는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중환자도 있었습니다. 38년을 그러고 살았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대답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직접적인 필요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낫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속에 1등으로 들어갈 도리가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동안 몸이 중병에 걸린 것도 괴로웠겠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 할텐데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이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기가막혀요!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의 처지에 맞게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봤어요. “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저는 연못에 1등으로 내려가야돼요. 성공해야되구요. 출세해야 되구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요. 자녀도 최고로 교육시켜야 하구요. 시집장가 잘 보내야 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물으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기도가, “머리가 되게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어요. 모두가 머리가 되면 몸통과 꼬리는 누가 되어 하나? 한 때 한국의 모 기업에서 그런 광고가 유행이었습니다.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암스트롱 선장, 최초로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의 사례를 들며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면 1등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죠. 1등이되는 것도 좋겠지만, 1등은 언제나 한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막상 1등이 되고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쫓기는 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중에 제자들은요, 내가 제일 크다, 내가 일등이다!를 논쟁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고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는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등만을 원하시지 않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일등이 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일등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공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소원일 뿐이지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말씀에 따라 섬기는 사람이 되구요,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바

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짧은 시가 있어요.

예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싶은 일 다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 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 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 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은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1등 삼으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잘되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라면 세상에서 나를 뭐라 평가하던지 상관없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나중까지 넘어지지 않고 꾸

준히 잘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두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설교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38년이나 누워있는 중환자라면 뭐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병이 나을 지어다!’ 하지 않으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어요.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헬라말로 [클라바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mat” 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말로써는 거적매기를 말하는거예요. 38년된 병자가 깔고 누웠던 거적매기가 어땠을까요? 고급 원단으로 만든 화려하고 깨끗한 매트였겠습니까? 아니면,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역겹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38년된 병자의 육체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삶의 자리도 바르게 정돈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원해요.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도 봤어요. 축복인데 결국 축복이 아닌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됩니다. 작은 것 붙잡고 정작 큰걸 놓치는 격이에요. 일이 안풀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일이 해결된 것을 표적삼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제든지 단지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정리된 삶으로 회복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포인트를 놓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발생해요. 구약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삶을 연장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장 받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죄를 졌어요. 연장된 삶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삶이 되면 안되지 않아요. 병이 낫는 것만큼이나,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진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정돈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만 보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금방 주님을 떠나 버려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주님께 의해 바르게 정돈되고 새로워진 삶으로 나아간 사람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신비로움이 있지만, 신비주의에 빠지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 다시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 원하시는 것은 '삶의 정돈'이라는 겁니다. 죄로 얼룩지고 형클어졌던 삶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속에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돈되는 겁니다. 욕망의 덫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황하느라 어수선하기만 하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겁니다. 바른 방향을 상실했던 삶의 목적이, 진리 안에서 주님을 향해 바르게 확정되고 정돈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부르셨듯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이번 한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